

월요객석



박규호 서울공대 객원교수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과정에서는 편법과 요령을 통해 피해 나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빗대어 한 말이다.

자금은 연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 그룹 회장이 했다는 어느 인터넷 기사도 새롭다. 일본식 경영이 폄에 뻤 그 분이 우리나라 진출 초기 사업 추진 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라고 생각 되는 "한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뭘 좀 하려 하면 규정을 내 밀고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 루트를 통하니 되더라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같지만, 얼마나 바뀌었는지 自問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바이흐르 전기차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일회 충전 주행거리 300km를 넘는 제2세대 신차의 등장과 자율주행차 등 전기차 관련 뉴스가 없는 날이 드문 것을 보면 자명해 진다.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도 각종 연구와 전기차 선진국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좋아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초기의 보조금을 통한 시혜적 지원에서 선진국처럼 이용자 편의를 높여 사용자의 자부심과 만족도를 높여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EV의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전환과 현재 추진 중인 노력의 가시화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소형차에서 중·대형차와 SUV가 보급되고 제3세대인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차량이 나오면 시책대로 게임은 끝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기존 내연차량 메이커와 3만여 개의 부품업체, 거대 정유회사 1만2000여 개의 주유소 그리고 약 20조원에 달하는 유류세 등 고려할 요소는 아주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를 고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는 것은 누구나 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한 미국과 비

야드를 앞세운 중국 그리고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 디젤의 오명을 벗고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흠 총전기 구축과 관련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2015년에는 보조금 600만원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보급을 추진하여 총전기 구축 진도가 더뎠다. 2016년에는 보조금을 400만 원으로 줄였으나 자동차 메이커와 충전사업자가 협력하여 사업을 잘 이끌어 왔다. 하지만, 금년에는 다시 환경부가 보조금을 300만원으로 낮추면서 산하 환경공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자선정을 하느라 법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오래 끌 뿐 아니라, 대기업들이 중기분야라고 할 정부보조금에 눈독을 들이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왜 잘 추진되던 사업방향을 매년 바꾸는 것인지 의아해진다. 물론 정책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쓰고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해서 만든 정책이었지만, 얼마나 널리 아이디어를 모으고 현장을 다녀 결정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정말 전기차를 타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달리며, 일상에서 사용해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 걱정이다. 시간과 인력도 없고 예산 등의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근본을 흔들지 말고, 기존의 정책을 보완해 가면 되지 않을까.

한국전력,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성공적인 공화 건설과 여수 엑스포조직위원장으로 엑스포를 훌륭하게 연출하셨던 존경하는 물 모델이신 강동석 전 장관님의 말씀이 새롭다. "나도 오래 공직에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자기 벤보(도시락의 일본어)만들 생각만 한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하기관을 만들고 인력을 늘리고, 중국에는 한자리 차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래 전의 말씀이니 현재 상황과는 동떨어진 일이었으면 좋겠다.

정책(Policy)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결정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나 계획의 세트'라고 폴린스 영영 사전은 규정하고 있다. 근본은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의 문제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여러 대안(alternative)들을 비교·분석·검토하여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얼마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척도가 됨은 나의 저서인 '소담한 생각'이나 여러 강연에서 강조하여 왔다.

실무자의 검토의견이 얼마나 잘 하의상달 되어 결정되느냐를 보면 된다. 워튼의 지시나 리더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폐해사례를 우리는 잘 목도하고 있다. 단적으로 젊은 지도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북한의 의사결정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정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국가경제의 주체인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의 살림을 이끌어 가도록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존재이다. 가끔 대리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정부정책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괴물이 되곤 하여 국민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례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자주 듣는 말이 上有政策 下有對策(상부의 정책이 있으면, 하부에는 대책이 있다.) 즉, 아

데스크칼럼



진시현 건설시공팀장

극심한 관절염에 시달리셨다. 그레 설까.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하셨다.

지척에 계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일 년에 두세 번 찾아뵈는데 그랬다. 취재하느라 경기도 안양의 할머니 집을 자주 지나쳤지만 그 때마다 마음에 걸려 전화 한 통 드린 게 고작이다.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약 10개월 전 병원으로 모셨는데 지금껏 두 번밖에 찾아뵈지 못했다. 이 모든 걸 후회해 봤자. 내게 크고 작은 추억을 남겨주신 그녀는 이제 이곳에 없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부재는 상당한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

삶, 죽음이라는 3단계를 표현하고 있다. 고갱은 약화된 건강과 생활고, 딸의 죽음 등으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한다. 그 또한 죽음 앞에서 탄생과 죽음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받아들이며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싶다.

최근 들어 유독 '호모'를 접두어처럼 사용한 단어가 많이 눈에 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호모 사피엔스(지혜가 있는 사람)나 호모 루덴스(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외에도 다양한 단어들 양산되고 있다. 호모 지취엔스(지취하는 사람), 호모 불만피엔스(불만 많은 사람), 호모 북커피스(책 읽는 사

외할머니와 호모현드레드

같다. 70세 가까운 나의 어머니는 통곡하셨다. 발인을 마치고 화장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눈빛은 갈 길을 잃었다.

모든 죽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진다.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은 왜 이리 아등바등 살며, 누군가를 끊임없이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깊은 분석을 하게 된다. 빛이 중한다. 이 말이 곱씹어지는 순간이다.

문득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고갱의 작품이 떠오른다. 이 그림 가장 오른쪽에는 누워있는 아이가 그려져 있고 중앙에는 과일을 따는 젊은이, 맨 왼쪽에는 무언가에 괴로워하는 늙은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인간의 탄생,

람), 호모 체어쿠스(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호모 현드레드는 100세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지칭한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에 달할 전망이다. 외할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으니 내 자식들은 100세를 훌쩍 넘어서까지 사는 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인생을 긴 호흡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외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생각의 종착점은 내 인생을 잘 가꿔야겠다는데 멈춰서니 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러나 나는 안다. 외할머니는 "아냐. 잘했다 잘했어."라고 하셨을 것을. 가슴 깊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

社 說

ICT기술과 전기의 융합, 전기업계 기회로 잡아야한다

순수 전기공급 분야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존 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기 분야에 ICT기술이 접목된 것은 전력산업계 뿐 아니라 순수 전기공사 시장에도 부는 변화의 바람이다. 산업이 융복합화 되다보니 사업 영역이 모호해 지고, 이는 사업자들 간 다툼의 소지로 발전하고 있다.

전력산업에 ICT기술이 접목되면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실시간 전기사용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하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스마트 에너지 소비 패턴이 만들어 지다. 기술의 진보는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한전이 수십년간 독점했던 전기 판매시장 개방까지 가능성을 열어줬다.

순수 전기시공 분야도 그동안 전기공사 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역이 파괴되면서 치열한 기술·논리 싸움의 현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소위 업계 다툼으로 확대됐다. 최근들어 LH, SH 등 건설공기업들이 ICT 기술 발달과 함께 스마트홈·스마트시티 사업모델 개발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전기시공업체 나아가 전기산업계 전체에 '위기 이면서 기회'가 될 것이다.

스마트홈·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LH는 세종시 등 국내 주요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했으며,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는 등 해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개념을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스마트시티 건설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의 요구 하우도 스마트 주택이다.

또 조직의 역할도 바뀌고 있다. ICT와 건설사업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기존에는 전기공사 설계, 감리 등 전통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전기조직이 에너지 관리와 ESS, LED 조명 등 ICT와 연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중심 업무를 담당하며, 전기 관련 부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읽으면 된다.

그렇다면 전기시공, 제조업체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진지하게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전에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 꾸준한 전문 인력 양성이 첫 단추일 것이다.

예전에 교통신호등 공사발주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통신 공사인 전기 공사인지 업역 다툼 논란이 있을때 전원을 공급해 설비를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전기공사 영역이란 논리로 간신히 전기공사 영역으로 정리해 발주를 했지만, 기술이 더 융·복합화된 상황에서 당시의 논리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최근 국회에서 전기 설계-감리업자가 건축물 내 통신이 포함될 모든 전기설비의 설계-감리를 할 수 없게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내용을 차차하고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통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전기설비는 건축전기설비업자가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건물 내 전기-통신 융합설비가 늘어나면서 전기 분야 기술자가 담당할 업역이 더욱 좁아진다는 점이다. 어쩌보면 이런 논란은 시 설회사의 요구 하우도 스마트 주택이다.

이 주의 특별한 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최고의 서비스와 제품 제공"

폭스바겐 그룹이 지난해 총 1039만 1113대를 판매해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출은 4% 상승, 영업이익률 목표는 6~7%를 설정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거둔 실적을 바라보는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 소비자 약 5100명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1심 공판에서도 양 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이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국내에 출시한 일부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만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내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배상금으로 총 147억달러(약 16조7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요하네스 터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총괄사장은 16일 "고객들이 보내주시는 믿음에 보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대용 기자 wee@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등록 서울도 06432호. 발행·편집인 이홍우 편집장 유희덕 인쇄지 한국문화인쇄주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가길 8 (등촌동) (우)07664 대표전화 (02)2168-1300 사장실 (02) 2168-1301-2 광고 1팀 (02) 2168-1351-4 광고문의 (02) 2168-1351-7 부사장실 (02) 2168-1303-4 광고 2팀 (02) 2168-1355-7 FAX 2168-1349 편집팀 (02) 2168-1312-5 경영지원팀 (02) 2168-1306-8 FAX 2168-1349 산업경제팀 (02) 2168-1330-4 FAX 2168-1349 건설시공팀 (02) 2168-1340-2 전략사업팀 (02) 2168-1360-1 FAX 2168-1349 본사 외국계유사 중국전력(보)중국, 베트남전기(보)베트남기(보)미국, 홍콩 E&EN 자회사

계측기 및 1, 2종 전설법정공구 소방면허 시설감리 전기 건축감리 장비 전문

YOKOGAWA MIZUMI. 유압식 단자 압축기 9H-150(14~150), 전선 압축기(유압식) EP 430(y-35), 유압 수동 펌프 HP700S, 유압식 철판천공기 SH-10(2', 3', 4'), 유압압착기 12A(14~325), 각종 낫타, 절연장갑·장화, 유압식 철판천공기 SH-10(2', 3', 4'), 유압압착기 12A(14~325), 절연유 시합기(HD101), 절지 용구 후쿠오시 절지저항계, 특수 저압 검전기, 누설전류계 Multi 140 φ40 m/m 0.01mA~300mA 누전사고예방, 소음계 (320), 조도계 (1065), 계전기 시험기 8510, 절연유 시합기(HD55), 절연유 산기측정기(HD101), 절지 용구 후쿠오시 절지저항계, COS 조작봉 7단 10m 2단 4M 3단 4M 5단 6M

양도 양수·합병·신규·법인전환. 전기·통신, 소방·건설, 신속·정확·신뢰. (주)동성M&A.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7, 역삼동 빅토리아빌딩 1005호. TEL 02-563-3345 FAX 02-563-3357

공사업 양도양수 전문기업 - 건설 원 M&A.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킨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신규등록. 건설 원 M&A. TEL : 02-557-5100(대), 557-5155 FAX : 02-557-5156

양도양수·합병·신규·법인전환. 26년 전통의 M&A 전문기업.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소방·건설. 신규면허·법인설립, 증자, 양도·양수·합병·분할,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기업 진단, 공계조합 출자금. 우리건설정보 www.wecc.co.kr. TEL : 02)584-8779 FAX : 02)6234-9889